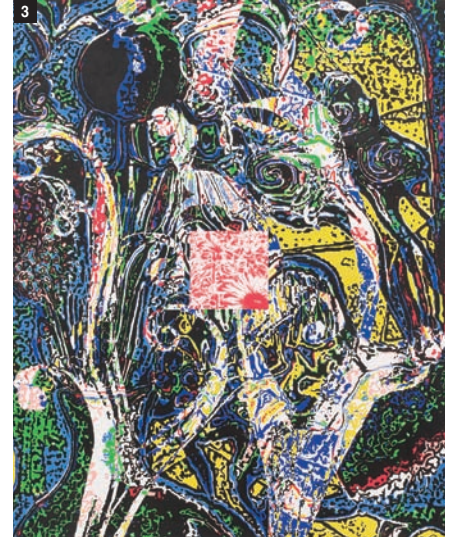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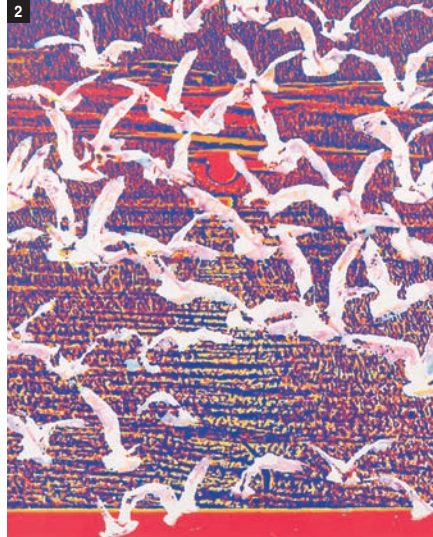


마틴 그로스 국내 첫 개인전



마틴 그로스: Dream File

문의 파운드리 서울 02-595-0223 foundryseoul.net
사진 제공 파운드리 서울

파운드리 서울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틴 그로스(Martin Gross)의 국내 최초 개인전 〈Dream File〉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미지, 기호, 음향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재구성하여, 무한히 확장되는 화면을 구축하는 마틴 그로스의 작품 세계 전반을 조망하고자 한다. 신작 및 근작 회화 12점, 2개의 장소 특정적인 영상 작업과 더불어 처음으로 공개되는 대형 애니메이션 영상 작업으로 구성된다. 그로스 작업은 흑백의 건축적 드로잉에서 시작된다. 시각적 언어, 색조, 기술을 발전시키며 대형 설치작업까지 확대된 그의 다양한 예술적 실천에서 공간의 구조와 정보를 평면 위에 나타내는 '지도 그리기' 개념의 드로잉은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로스의 작품에는 이모지, 밈, 텍스트, 광고 문구 등 다양한 모티브가 담겨있다. 비언어적 기호로 작용하는 이들은 작가가 자신의 주변에서 포착하고 추출한 이미지로, 잘라내기 기법(Cut-up technique), 몽타주 기법 등의 편집을 통해 기존 맥락에서 분리되며 변형된다. 각각의 요소는 무작위적 배열에 기반한 우연성 속에서 새로운 맥락으로 재탄생된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 속에 위치한 각 요소를 일종의 '하이퍼텍스트(Hypertext)'로 비유한다. 이들은 화면 안에서 미술사, 인터넷 환경, 팝 문화 등의 무한한 서사로 이어진다. 동시에 자율적인 움직임을 부여받은 각 요소의 무작위적인 조합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미학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Dream File〉의 전시명은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드 넬슨(Ted Nelson)이 처음으로 구상한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 'dream file'에서 비롯한다. 이는 마치 하이퍼텍스트처럼, 관람객의 시선과 개인적 경험에 따라 사고의 흐름이 자율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로스의 작업 세계에 대한 실마리이자 넬슨에 대한 오마주이다. 그로스는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와 패턴을 마주하며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험을 과적재된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앨리스의 토끼굴처럼 각자만의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장치를 배치한다. 다양한 온라인 현상과 환상적이고 감성적인 요소가 중첩된 화면 속 파편처럼 흩어진 이미지는 어느덧 자유롭게 결합하며 보는 이의 경험을 통해 비로소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전시는 9월 16일까지 이어진다.

- 01_ All In Cold, 2023, Oil Stick on Paper, 196×160cm, ©dotgain.info
- 02_ Grey Skies Turquoise Days, 2023, Oil stick on Paper, 196×160cm, ©dotgain.info
- 03_ Night Forest, 2023, Oil Stick on Paper, 196×160cm, ©dotgain.info
- 04_ Dream File, FOUNDRY SEOUL, 2023 Installation View ©Kyung Roh
- 05_ Time To Go, 2023, Oil Stick on Paper, 196×160cm, ©dotgain.info

